



태산처럼 우뚝한 ‘섬것들’의 투쟁사 제주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찾아서 1

글 · 사진 | 김기선 ningirsu@naver.com

섬은 못 보고 ‘섬것들’만 보고 돌아왔다. 포개 얹은 ‘섬것들’은 여봐란 듯 ‘수놓 어가명’ 잘만 살아가고 있었다. 설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제주에서 목숨 가진 이라면 누구나 견디고 있을 그런 것들 뒤에서 옹골지게 자기를 일으켜 세운 자존심들이 바람바람 빛나고 있었다.

관덕정은 알고 있다

제주시 북관에 자리 잡은 관덕정 일대는 아주 오래 전 탐라국 시절부터 제주의 중심이었다. 제주성 안쪽에는 관아가 늘어서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제주목이 설치되자 이곳은 중앙에서 파견된 목사의 치소(治所)가 됐다. 이 싸늘한 통치의 공간이 제주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관덕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1448년에 세워진 관덕정은 본래 병사들의 무예수련과 활쏘기를 위한 장소였다. ‘관덕(觀德)’이란 중국의 「예기(禮記)」에 나오는 ‘사자소이 관성덕야(射者所以觀盛德也)’에서 유래한 말로, ‘활 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덕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활을 쏘는 자세나 태도로 그 사람의 됴됨이를 짐작한다는 것이니, 그 말대로라면 문(文)과 무(武)의 정신이 이곳에서 아름답게 만날 법하다.

병사들의 훈련장이었던 관덕정은 차차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쓰임새를 갖게 되었다. 물으로 보낼 진상용 말들을 점검하기도 하고, 과거를 치르기도 했으며, 때로는 재판정이 되었다가, 굴놀이가 벌어지는 잔치판이 되었으며, 1641년 제주에 유배됐다 세상을 등진 광해군의 빈소가 되기도 했다. 이곳을 찾는 발길이 잦아지면서 이 일대에는 5일에 한 번씩 큰 장이 섰으며, 해방 후에는 인민위원회·미군정청·도청·경찰서·법원 등 근대적인 행정 기관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긴 세월 같은 자리에 묵연히 서서 풍운의 제주 역사를 지켜보았을 관덕정.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관덕’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더 많았으리라. 관덕정은 피어린 역사의 현장이자 말없는 목격자였다.

1901년 신축년 농민항쟁이 일어났을 때 항쟁의 장두 이재수가 이곳에서 효수되었고(서울로 압송된 후에 효수되었다는 설도 있다) 제주 4·3항쟁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도 이곳에서 발생했다. 1949년 6월 4·3항쟁 당시 인민유격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의 시신이 십자형틀에 묶여 전시된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봉두난발에 엮은 얼굴, 윗옷 주머니에 수저 하나가 꽂힌 시신 옆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붙었다고 한다. ‘이덕구의 말로를 보라.’ 그의 시신은 다시 효수돼 관덕정 인근의 전봇대에 내걸림으로써 반란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1954년 9월, 4·3항쟁이라는 한국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7년 만에 수만 명의 희

생자를 내고 막을 내렸을 때 섬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치유할 길 없는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정치적 암흑이었다.

“이만이 죽었다 삼만이 죽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4·3이 준 가장 큰 상처는 공동체의 와해거든요. 한 집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장 차이로 인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말 한마디가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크면서 어머니한테 항상 들었던 말이 ‘절대 여기도 서지 말고 저기도 서지 마라.’ 70년대까지 제주에서 선거를 했다 하면 항상 무소속이 됐어요. 여당도 안 찍고 야당도 안 찍어요. 여당은 싫고, 야당 쪽에 붙기에는 무서우니까. 오죽하면 제주도를 정치일번지라 그랬겠어요. 제주도에서 야당이 이기면 전국적으로 야당이 이긴다는 거죠.”(김수열, 시인)

소그룹 운동 시대

길고 질긴 침묵 속에서도 강력한 분출의 때를 기다려온 이 섬의 후일담은 강남규와 김수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1960년 4·19 직후의 이완된 분위기 속에서 4·3항쟁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몇몇 제주대 학생들의 시도가 5·16 군사정권의 칼바람에 부딪히고, 1965년 전국을 강타한 한일회담반대투쟁의 열기마저 사그라지

제주시 북판에 자리잡은 관덕정 일대는 탐라국 시절부터 제주의 중심이었다.



자 제주 지역 민주화운동은 긴 동면기(冬眠期)를 맞이한다.

제주실업전문대(현 산업정보대) 75학번인 강남규와 제주대 78학번 김수열은 ‘군대 안 가려고’ 혹은 ‘재수할 형편이 못돼서’ 제주에서 대학시절을 보낸 이들이다.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나선 이들의 변모 과정은 두터운 얼음장을 제치고 동면에서 막 깨어나려는 70년대 말 80년대 초 제주 사회의 두 흐름을 짐작케 한다. 종교의 우산 아래 꿈틀거리고 있던 흐름이 하나요, 시와 문화를 내세운 흐름이 또 다른 하나다.

개별적인 활동은 사실 이들 이전에도 있었다. 박현채와 함께 민족경제론을 주창했던 진보학자 정운형, 민청학련에 연루돼 고초를 겪은 강창일, 소설가 현기영과 시인 김명식 등은 모두 제주가 배출한 출중한 인재들이다. 이들이 각 분야에서 이룬 성취는 제주지역 운동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실제로 제주의 운동을 이끈 것은 제주에서 제주의 한계와 싸우며 가장 제주인다운 활동을 펼친 이들이었다.

당시 제주도에서 모든 부모들의 바람은 ‘자식만큼은 섬에 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발을 팔아서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저 수평선을 넘어야 했다. 그것이 ‘출세’였다. 섬에 눌러앉은 젊은이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물에 도달하지 못한 청년일 뿐이었으며, 가난과 수평선에 가로막힌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들이 대체로 할 수 있는 일은 허름한 막걸리집에서 숨죽인 울분을 들이켜는 일이었다.

“가끔 서울 간 친구들이 내려와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이걸 외국 이야기 듣는 거예요. 뭐 막걸리 마시면서 흘러간 옛노래나 부르고 말로만 분노를 표출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1976년에 이정훈 목사라고 경기도 양주에서 문동환 목사와 공동체 활동 하다 내려온 분을 제주YMCA에서 만납니다. 웬 목사가 나타나더니 이상한 책을 주고 말이지 전태일·박동선 얘기도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술이나 쳐먹냐?’ 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주도란 게 이렇게 변방인가. 그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하자 해서 YMCA 내에 서클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성서모임이예요. 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이 서클에서 『전환시대의 논리』나 『8억인과의 대화』 같은 책을 읽고, 해방신학·민중신학에 눈뜨게 되죠. 그렇게 몇 개월 하니깐 들은 건 많지 제주도 현실은 그게 아니지, 사람이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래 76년 말 졸업을 앞두고 서울에 올라가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강남규, 전 제주 돌소리노동상담소 소장)



강남규, 전 제주 돌소리노동상담소 소장



김수열 시인

강남규의 '현장이전'은 YMCA 성서모임에 참여한 것이 중요한 전기가 되었지만, 기실 70년대 후반 방향하는 제주의 젊은이들을 '의식화' 시킨 대표적인 공간은 제주 서부교회와 동부교회 대학부였다. 이에 대해서는 동부교회 출신인 이재홍(제주의 소리 편집국장)의 설명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긴급조치 시대인 70년대 후반에 교회 내 대학부를 중심으로 기독교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갈래로는 가장 기청이죠. 서부교회가 제일 활발했고 다음이 동부교회였어요. 당시 제주도에서 학생운동은

거의 없었어요. 81학번인 제가 학생운동 1세대라고 평가되니까요. 얼마 안 되는 학생운동(권)도 기독교에 많이 들어왔어요. 기독교라는 틀이 좋았던 게 외형적으로 일단 커버가 되고, 교회라는 물적 틀이 있고, 정보도 상당히 원활한 편이었죠. 보통 한 달에 한 번 서울 올라가서 기청 전국연합회 회의에 참석하고, 자료를 많이 갖고 와서 돌려가며 읽고 그랬거든요.”

“기청 전국대회 어마어마했죠. 수천 명씩 모이니 나가면 무조건 가투하고, 당시는 물박하고 정보 네트워크가 거의 없고, 언론 보도도 안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 한번 갔다오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순사한테 털 겁먹었지. 기청 전국대회가 지역에 미친 영향도 많아요. 갔다 오면 우선 전국 상황을 알 수 있는 풍부한 자료, 어디서 어떤 투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으니까. 제주도에서는 기청 소속 청년들 의식이 비교적 깨어 있었어요.”(강남규)

당시 야당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반정부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룹이 전무했던 제주도에서 교회라는 공간은 대단히 유용한 것이었다. 조직화된 운동체라 보기에는 다소 허약하고, 금기와 탄압을 거스르는 비장한 '액션'도 없는 이 소그룹 운동은 보수적인 교회의 분위기를 일신했을 뿐만 아니라 80년대를 맞아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다양한 '인자'를 공급하는 인력풀로 작용하기도 했다.

수놓음, 제주의 문화운동시대를 열다

1978년에 발표된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은 우리 사회에 대단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북촌리 학살사건'을 중심으로 4·3항쟁의 문제를 제기한 이 작품에서 현기영은 작중인물의 입을 빌어 제주도 민중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당당히 증언해야 함을 역설했는데, 그것은 특히 제주 지역 젊은이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심심하게' 학교를 다니던 문학청년 김수열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버스를 타고 제주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름에 시골에 가면 팽나무 밑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소주 하나 들고 가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 말을 안 해. 그게 4·3이었던 거지.”

80년대 초반, 그는 4·3항쟁과 제주 민중의 수난을 형상화한 일련의 시를 『실천문학』에 보내는데, 제주 토속어로 된 그 시편들은 최종심을 맡은 신경림과 고은에게는 해독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번역'을 맡은 이가 현기영이었다. 4·3의 시인 김수열의 이름이 문밖에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정작 그가 더 신명을 낸 분야는 마당극이었다.

마당극 운동은 70~80년대라는 한국 정치의 가장 치열한 공간에서 광의의 정치극을 통해 현실사회를 풍자하고 실천을 이끌어낸 진보적인 운동이었으며, 마당극의 이런 특성은 그것을 연극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운동권의 한 중심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70년대 중반 서울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져 나간 마당극 운동은 정치·문화적으로 소외돼 있던 지역에서 오히려 더 큰 성취를 이뤄냈다. 극단 '수놓음'의 활동을 필두로 한 제주도의 마당극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다. 수놓음의 탄생은 1980년 제주에 내려온 황석영과 제주대학교 극예술연구회 구성원인 문무병, 김창후, 김후배, 김수열 등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 6월경 계엄령 때문에 집에 있을 텐데 한 선배가 전화를 했어요. '야, 나와라. 너를 꼭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갔더니, 양아치 같이 하얀색으로 짝 빼입은 게 하나 앉아 있더라고. 알고 보니 그게 황석영이야.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나온 거야. 너무 반가웠지. 무슨 공연을 할 거냐, 민속학을 하는 문무병 형이 제주도 굿을 가지고 하자, 좋다. 무병이형이 기본적인 틀을 짜고, 황석영 선배가 아이디어를 내고, 첫 작업을 한 게 제주도 토지투기 문제를 다룬 「땅풀이」 공연이었어요. 전두환이가 정권 잡은 직후인 80년 8월 2일, 3일 공연했는데, 정말 군인들 무식하더라고. 계엄 하에서 대본을 검열할 텐데 제주 말로 쓰니까 모르더라고.”

「땅풀이」 공연으로 극단 수놓음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그들은 김후배의 사재 출연으로 제주시내에 작

문무병 시인





자유항 반대투쟁이 열렸던 제주대학교 본관 앞.

은 소극장까지 마련하였다. 황석영의 제안으로 ‘중앙 정사에 의해 희생된 제주사’로 눈을 돌린 수놓음은 대몽항전을 다룬 「항파두리 놀이」, 1932년 해녀들의 항일투쟁을 다룬 「좁녀풀이」 같은 역사물을 잇달아 발표한다.

「항파두리 놀이」를 끝으로 군에 입대한 김수열이 복학한 것은 1983년이였다. 그 사이 양적으로 성장한 제주대 학생운동은 이지훈, 이재홍 같은 탁월한 리더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학내에 수놓음을 만든 김수열은 언더 팀에서 후배들과 학습을 하면서 문화운동에 뿌리를 둔 리더십을 갖추었다. 그해 가을, 이지훈·이재홍·김수열 등으로 구성된 학내 지도부는 비밀리에 가두시위를 기획하는데 그것이 곧 자유항 반대투쟁이였다. 수놓음의 「태손땅」 공연과 함께 시작된 이 최초의 시위로 인해, 제주대 학생운동권은 이지훈의 강제징집과 학내 수놓음 해체라는 대대적인 역풍을 맞게 된다. *김기선*

글 김기선 | 1965년 서울 출생. 평전 작가. 저서로는 『저는 열네 살 선영이에요』, 『전태일』, 『김진수』, 『최종길』,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이 있다.